

## 일제 식민지 시기 온양온천의 신혼여행지로의 변화\*

An Exploration of Onyang Hot-spring Resort's Conversion  
to a Honeymoon Destinati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유 광 민\*\*

Yoo, Kwang-Min

### ABSTRACT

*Onyang hot-spring resort was formerly used as a hot-spring cure by Kings of the Joseon Dynasty was changed into a destination visited by members of the former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and by upper social class members whom visited the site for honeymoon purposes. This study conducted analysis how Onyang Hot-spring resort became an upper social class honeymoon destinati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Onyang, in the former modern society, was an object of mimetic desire as space of sacred hot-spring cure. The colonial modern society newly reconstructed the model of mimetic desire on and space of Onyang hot-spring resort, where it became an example of a modern object of mimetic desire to pursue. And hot-spring resort was also organized culturally as an admire object which served to justify Japanese colonial rule. Honeymoon is conducted by mimetic desire to play a role of sacred model Onyang hot-spring resort which became object of mimetic desire of modern society could be preferred as honeymoon destination. Preference and change as honeymoon destination can be explained by the model change of mimetic desire and cultural change of tourist gaze about destinations.*

**핵심용어(Key words) :** 신혼여행지(Honeymoon destination),  
온양온천,(Onyang hot-spring resort),  
모방욕망(Mimetic desire)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학문후속세대양성\_학술연구교수(인문사회)-B00049)

\*\* 호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연구교수. e-mail: ykm4458@hanmail.net

## I. 서론

20세기 초 근대화의 시작은 일제에 의한 식민 근대화를 특징으로 한다. 일제 식민지배하의 한반도에서 서구 근대 문화가 일상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 1920년대(주창윤, 2008) 이후 온양온천은 신혼여행지로 부각되었다(김주리, 2007). 온양 온천을 포함한 온천개발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경영을 위한 철도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루어졌다(성주현, 2011). 그 결과 조선왕들의 탕치의 공간이었던 온양온천은 총독부 고관들과 조선인 상류계층들이 즐겨 찾았던 식민지의 근대화된 여가공간으로 변화되었고, 신혼여행을 갈 수 있었던 소수의 계층에게 신혼여행지로 받아들여졌다(권귀숙, 1998). 온양온천은 한 때 신혼여행지로 선호 되었으나 그 명성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공간 중의 하나이다. 온양온천이 어떻게 신혼여행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는 특정 공간의 신혼여행지로서의 생성과 변화에 대한 이해의 일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 식민시대의 온천 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식민지 근대화의 과정에 의한 공간변화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거나(박천홍, 2003; 부산근대역사관, 2010 등) 온천에 대한 표상 변화에 대한 연구(김주리, 2007) 등에 집중되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온천개발이 가지는 근대성과 식민지성 그리고 소비 공간으로서의 이미지에 대한 이해 근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을 수 있다. 특히 관광분야에서의 온천에 대한 연구는 온천관광지의 환경단서와 방문객의 만족도와 충성도의 관계(이용기·이덕우·이충기, 2008), 온천관광지별 매력차이 연구(이재섭·김홍일·한범수, 2010), 온천관광지의 포지셔닝 연구(김시중, 2011) 등 온천관광지를 주어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은 온양온천 등이 왜 신혼여행지가 될 수 있었는지 혹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적 이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제 식민시대에 온양온천이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어떻게 신혼여행지로 선호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적 분석이 요구된다.

사회 환경은 근대 소비 행위에 대한 소비욕망과 관광공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특정 공간의 신혼여행지로의 변화는 해당 사회의 소비욕망으로서의 신혼여행과 신혼여행지와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신혼여행은 일종의 통과례(반겐넵, 1908)이며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소비행위이다. 따라서 온양온천이 1920년대에 신혼여행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혼여행이 가지는 사회적 욕망과 통과례가 이루어지는 무대로서의 신혼여행지 온

양온천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통과 의례로서의 신혼여행은 성(聖)적인 대상에 대한 지위 역할을 요구(반겐넵, 1908)하는 관광의 한 종류이다. 관광은 물론 신혼여행 또한 근대화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신혼여행은 왕이나 왕비와 같은 성적인 지위에 대한 모방욕망에 기초한 근대적 산물이다. 이러한 근대 산물이 모방욕망으로 선호되기 위해서는 모방 대상에 대한 이미지나 신념 등이 사회,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MacCannell, 1976).

따라서 본 연구는 1920년대 이후 식민 근대화가 어떻게 온양온천을 모방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신혼여행지로 선호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론적 상상력에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론적 추상화(abstraction)를 통한 분석을 시도해야 하며, 다양한 이론과 경험적 자료, 문헌 등을 활용하게 된다(닝왕, 2000:53). 이를 위해 일제시대의 신문자료, 소설, 탐방기, 역사기록물 등의 자료와 선행연구자료 등을 활용한다. 일제시대의 신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가온 검색서비스를 활용하였으며, 역사기록물은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 자료를 활용하였다.

## II. 통과 의례와 모방욕망

### 1. 통과 의례와 모방욕망의 신혼여행

#### 1) 통과 의례로서의 혼례와 신혼여행(지)

결혼은 다른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일종의 전이이다. 따라서 결혼식은 일종의 통과 의례이다. 전통혼례 또한 일정한 절차를 통해 신랑과 신부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공간에 통합시키는 통과 의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이영배, 2011:150). 통과 의례는 세속의 세계에서 성(聖)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분리의 의례와 다시 성(聖)적인 세계에서 세속의 세계로 통합하는 통합의 의례로 이루어진다(반겐넵, 1908). 성적인 세계에서 이전의 지위와 다른 지위에 들어간 사람은 세속적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신성한(sacred)’ 것이다(반겐넵, 1908:7). 통과 의례로서 신성한 상태를 나타나기 위해서 결혼식에 신성한 것을 상징하는 많은 물건(예 왕 또는 배우자들 앞을 가리는 천, 왕관, 왕을 상징하는 물건과 마찬가지로 약혼자에게 속하는 신성한 물건 등)이 사용되기 도하며 북아프리카나 인도의 일부지역에서는 신랑을 ‘왕’, ‘술탄’, ‘왕자’로 부르며 신부

를 ‘여왕’, ‘여술탄’, ‘공주’로 중국에서는 신랑을 ‘나오리(mandarin)’라고 부르기도 한다(반겐넵, 1908:204-205)<sup>1)</sup>.

근근대 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은 혼례의 구체적인 모습을 변화시켰다. 서구 근대사회의 발전과 함께 발전은 근대 사회 이전에는 혼례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혼여행을 혼례의 하나의 과정으로 발전시켰다. 그럼에도 혼례의 일부분으로서 신혼여행은 통과의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신혼부부들 특히 신부가 신혼여행 과정에서 공주처럼 대접받거나 대접받기를 원하고 왕과 왕비로서의 신성한 세계의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며, 주변사람들은 이를 혼쾌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신혼여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권귀숙, 1998). 따라서 신혼여행은 성(性)과 성(聖)이 만나는 통과의례의 장이며, 신혼여행지는 신혼부부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성(聖)의 세계의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모방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신혼여행지에서 신혼부부가 왕이나 왕비와 같은 역할을 얼마나 훌륭하게 수행하느냐가 신혼여행의 성공을 결정한다. 성공적인 신혼여행을 위해서 신혼부부는 신혼여행기간 동안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옛날 궁전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처럼 보이는 최고급 호텔을 이용하게 된다(권귀숙, 1998:61). 그러므로 신혼여행지<sup>2)</sup>는 통과의례로서 왕이나 왕비와 같은 성(聖)의 세계의 주인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신혼여행지가 신혼여행지로의 매력성을 가지고 무대로 선호되기 위해서는 성(聖)의 세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거나 성(聖)의 세계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광공간에 대한 상징성은 문화적으로 조직된다(MacCannell, 1976). 그러므로 성(聖)의 세계에 대한 모방욕망을 가지고 있는 신혼여행지에 대한 선호에 대한 이해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변화된 모방욕망의 대상 혹은 대상에 대한 변화된 신념 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1) 서양이나 다른 많은 나라에서 결혼식이 때때로 즉위식의 유형과 비슷한 것은 바로 신성한 상태로 분리의 통과의례를 의미한다(반겐넵, 1908:204). 우리 전통혼례에서 신랑이 입었던 사모 관대는 조선 벼슬아치 당상관의 옷이었으며, 신부의 혼례복이었던 녹색원삼은 공주의 대례복이었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이해될 수 있다.

2) 신혼여행지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해외의 관광지들은 인간세계에서 현실로 존재할 수 없는 지상 낙원으로 현대인들에게 성스러운 공간이며, 이 지상 낙원에서 신랑과 신부는 하인들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성(聖)의 세계에 존재하는 왕이나 왕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현재 해외의 신혼여행지 또한 신혼부부가 성(聖)의 세계를 상징하는 존재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 2) 모방욕망으로서의 혼례

전통적으로 소비는 사회 계급적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대상이었다. 삼국시대에 계급에 따라 의복과 수레, 그릇 등의 사용에 차이를 두어왔으며(정봉구의, 2012) 고려시대에서도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 맞는 범위 안에서만 사치가 허용되었다(하일식 편, 2007). 조선시대 때에서도 옷의 모양이나 색, 가옥 크기 등 또한 계급에 따라 달랐다. 이와 같이 사회질서와 관계된 소비는 계급에 따라 규제되고 차이를 두어왔다. 이러한 속성은 혼례제도에서도 확인된다. 해동역사<sup>3)</sup>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 혼례는 “귀인(貴人)이나 사족(仕族)의 혼가(婚嫁)(혼례)에는 대략 빙폐(聘幣)(공경하는 뜻으로 보내는 예물)를 쓰나, 백성에 이르러서는 술이나 쌀을 서로 보낼 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신라에서도 혼인은 오직 술과 음식만을 가지고 하는데, 잘 차리고 못 차리는 것은 빈부에 따라서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계급에 따라 차이를 두어온 혼례는 모방욕망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는 경상도 지역의 혼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술두루미 제도 변화에 대한 강정원(2009)의 연구에서 서민들의 혼례가 상층 양반들의 혼례 방식을 모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혼례는 모방욕망의 대상으로서 사치스러운 과시 소비에 대한 욕망을 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시 소비욕망을 내재하고 있는 혼례는 사치스러운 혼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혼례의 사치화로 사회여건에 따라 현실 세계에서 발현되어왔다. 이는 부유하고 세력 있는 집안을 중심으로 혼수사치가 점차 심해져, 규제를 마련하여 관의 이속과 의녀를 보내 감찰하도록, 건의, 시행하게 하였던 조선시대에 15세기 후반의 사건에서도 확인된다(김정근·홍형욱, 1996:196).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혼수 사치 풍속은 없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17세기 이후 농업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신분제의 변화, 정치 사회적 혼란이 나타나면서 중인이나 상인에게 파급되어 질적, 양적으로 가능한 많은 혼수를 장만하고자 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홍나영·이은진·박선희, 2002:145).

혼례의 사치 문제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1970년대 전후에는 검소와 간소화를 장려하는 ‘가정의례준칙’과 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예식이 간소화되기도 하였지만, 1994년 4월 호텔 결혼식이 허용된 이후 신문에서 신랑신부들이 전시효과에 집착하여 혼수보다 예식을 강조한다는 기사 내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3) 조선 후기 실학자 한치윤(韓致胤)이 서술한 단군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서(네이버)

있는 것은 1990년대에 혼례가 과시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다(홍나영 외, 2002:13). 이와 같이 통과의례로서의 혼례는 전통적으로 모방소비 욕망의 대상이었으며 신혼여행 또한 모방욕망의 대상일 수 있다.

## 2. 모방 욕망과 근대화

### 1) 모방 욕망의 구조와 신혼여행

모방욕망의 관점에서 보면, 주체의 욕망은 순수한 주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라캉(Lacan)이나 지라르(Girard)에 따르면, 욕망은 순수한 주체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이며, 생리적 욕구와 다른 것을 의미한다.<sup>4)</sup> 그리고 라캉에 따르면, 인간은 타자에 의해 '바라보여지는' 주체로서 자신을 의식한다(김현진, 2006:370). 그러므로 주체는 바라보기만 하는 내가 아니라 보여짐을 당하는 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자신의 욕망을 타자의 욕망에 종속시킨다(라캉, 2011). 주체는 주체의 응시와 대상의 주체에 대한 응시가 만나는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미지 너머에 있는 대상에 완벽하게 접근하지 못한다(라캉, 2011). 주체는 이미지 너머에 있는 대상에 완벽하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선 너머에 존재하는 대상과 이미지 사이에는 영원히 좁힐 수 없는 결핍이 있게 된다(라캉, 2011). 이 욕구와 요구 사이에 생기는 틈, 결핍이 바로 욕망이다(이동성, 2005). 그러므로 욕망은 생물학적 욕구와 달리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라캉, 2011). 그리고 주체는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미지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상상하는 그 무엇인가를 보며, 이미지 너머로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욕망을 자극한다(김현진, 2006).

이러한 라캉의 욕망은 캠벨(Campbell)(1987)이 말하는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는 상상적 쾌락 소비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형성되고 욕망을 자극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sup>5)</sup>. 라캉은 소비에 대한 욕망이 이미지와 기호에 대한 소비 욕망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라캉의 욕망은 주체의 욕망 변화는 타자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주체의 욕망변화에 대한 이해는 변화된 타자의 질서 혹은 타자의 욕망과 주체와 대상의 응시가 만나

4) 라캉(2011)은 욕망(desire)을 욕구(need)와 요구(demand)를 구별하는데, 욕구는 식욕, 성욕과 같은 1차적인 충동을 말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충족시켜달라는 요구로 표현한다.

5) 예컨대, 상품광고가 왜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는지와 그 구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는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러한 이해는 신희여행지에 대한 욕망에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관광에 대한 시선은 욕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sup>.

라캉의 욕망은 모방 대상인 타자와 주체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라르는 라캉이 욕망을 결핍으로 이해하는 것을 거부하고 모방으로서의 욕망<sup>7)</sup>을 주장함으로써 모방욕망의 대상이 되는 모델과 욕망 주체와의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인다<sup>8)</sup>. 지라르는 인간은 이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연발생적인 순수한 주체의 욕망은 없으며, 욕망은 항상 제3자 즉 모델과의 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한 욕망은 항상 '매개자'로 불리는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감정이며 욕망은 주체와 대상 사이의 직선이 아니라 매개자를 사이에 둔 삼각형의 관계이다(김모세, 2008)<sup>9)</sup>. 이러한 매개된 욕망은 항상 모델의 우월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 우월성을 모방함으로써 자기 존재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욕망이다. 모방을 위해서는 매개자가 주체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체가 이 모델에게 환상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도 한다(김모세, 2008:76)<sup>10)</sup>. 지라르의 모방욕망 이론은 베블린(1899)의 유한계급론과 같은 이론을 지지하며 라캉의 욕망이론이 다루지 못하는 주체와 매개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지라르의 욕망에서 주체와 매개자 사이의 거리는 욕망의 강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지라르는 우선 욕망하는 주체와 매개자 사이의 거리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를 '외적 매개(médiation externe)'라고 하며, 주체와 매개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있는 경우를 '내적 매개(médiation interne)'라고 구분한다(김모세, 2008). 외적매개의 경우는 자신이 월등히 우월한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내적매개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대상을 사이에 둔 경쟁자가 된다(김모세, 2008). 그러므로 매개자와의 거리나 매개자의 변화는 주체의 욕망의 강도나 행동전략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6) 욕망은 관광공간의 입지나 확산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유광민·김남조, 2011).

7) 지라르는 모방의 속성이 모든 학습과 문화의 초석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김모세, 2008:112).

8) 라캉의 이미지 너머로 존재하는 대상이 바로 지라르의 모방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라캉의 욕망은 지라르의 모방욕망과 만날 수 있다.

9) 욕망의 대상은 사건에 따라 바뀌지만 욕망의 삼각형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김모세, 2008:37)

10) 이러한 점에서 지라르의 욕망은 라캉의 이미지를 통한 욕망과 만날 수 있다.

통과의례인 신혼여행 또한 지라르의 모방욕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혼여행에서 신혼부부가 수행하는 역할인 왕과 왕비는 욕망의 외적 매개자이다. 그러므로 여행지가 신혼여행지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적매개자의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기호를 가진 공간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혼여행지는 신혼부부가 성스러운 외적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혼여행지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 신혼여행 욕망의 매개자(외적 매개자로서)가 누구(혹은 무엇)이며, 어떠한 매개자가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공간을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 2) 근대사회와 관광 욕망의 구성

근대사회는 이성과 합리성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연이나 예술, 문학 등의 낭만적 활동을 찬양한다(닝왕, 2000). 이러한 근대에서 신은 죽었으나 자신의 동료보다 더 경건해 보이려는 인간의 욕구는 살아있으며, 이러한 충동은 여가 활동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MacCannell, 1976:11). 관광을 포함한 많은 라이프스타일은 추종자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모델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확산된다(MacCannell, 1976). 따라서 관광객이 풍경이나 공간을 보는 방식에는 모방하고자 하는 모델에 대한 욕망이 들어있다. 모방욕망이 반영된 관광에서의 매력물에 대한 경험이 조직되기 위해서는 이상을 의미하는 혹은 정신적, 심미적 그리고 심리적 우월성을 포함하고 있는 모델과 모델에 근거하여 변화되고 창조되고 강화된 신념이 있어야 한다(MacCannell, 1976). 이러한 신념은 관광매력물에 대한 바라보기 즉 시선 혹은 시선의 체제를 만들어낸다(Urry & Larsen, 2011).<sup>11)</sup> 이러한 보는 방식은 소비계층의 아비투스(Habitus), 문화적 전통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방욕망이 반영된 관광은 근대사회의 사회분화를 반영하며, 사회분화에 대하여 수행되는 일종의 의식(ritual)으로서 사회적 정체성을 발견하거나 재구성하게 한다(닝왕, 2000). 이와 같이 근대사회의 주체를 형성과정에서 관광과 여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모방욕망은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20세기 초 서구사회에 무엇이 근대 관광매력물이 되었는지에 대한 맥켄널(1976)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맥켄널(1976)에 따르면, 20세기 초에 서구사회에서 근대를 찬양하는 대상은 중요한 관광매력물이이었다. 일반적으로 관광매력성은 자신의 경험에서 발견하기 힘들 실재의 모습을 지닌 타자로부터 발생한다

11) 주체의 시선은 사회적, 시대적 배경에 의해 규정된다(김사현, 2008:7).

(Urry & Larsen, 2011). 그러므로 20세기 초반에 주체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근대화는 매력물이 될 수 있었다. 이는 1910년대에 소개된 서구 사회의 많은 종류의 관광안내서에 의류센터, 박람회, 전문점과 특매장, 대심원, 노동전시들, 증권거래소, 화폐주소, 정부인쇄소, 직공들, 담배공장, 시체 공시소, 공설도살장, 파리의 하수구 등 근대성을 찬양하고 사회질서의 중요성을 교육시키는 공간이 관광 매력물로 소개되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MacCannell, 1976). 심지어 주인을 모르는 시체를 전시해 놓은 시체 공시소 또한 이성 중심의 근대질서 체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로서 관광매력물이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관광매력물이 아닌 시체 공시소를 포함한 근대화를 상징하는 대상물들이 관광 매력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20세기 초반 사회에 전근대 사회와 다른 새로운 근대화는 찬양의 대상으로 정신적, 심미적 그리고 심리적 우월성을 포함하고 있는 욕망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근대사회는 이성적 질서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적 로고스뿐만 아니라 낭만적 에로스를 욕망의 대상으로 변화시켜왔다. 낭만주의는 자연을 신성한, 이상적 대상으로 다룬다. 예를 들면, 낭만주의 예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워드워즈의 시는 그가 언급한 각각의 장소를 순례지로 만들었고, 워드워즈가 자신의 시에서 창출한 장소들의 이미지는 환경적인 실재를 초월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Squire, 1988:243: 낭왕, 2000:141 재인용) 이러한 이미지를 통한 쾌락은 실재의 경험보다 보다 더 큰 환상적 쾌락을 가져다준다(Campbell, 1987). 이와 같이 근대사회의 낭만주의는 자연 등을 찬양함으로써 욕망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상상적 쾌락 추구를 특징으로 한다.<sup>12)</sup> 그리고 이러한 낭만적 시선은 새로운 대상에 대한 혼자만의 시선(혹은 주체만- 사람 없는 해변, 아무도 없는 언덕, 사람이 살지 않는 숲, 오염되지 않는 계곡 등등)과 관련되어 있다(Urry & Larsen, 2011:19). 이와 같이 근대사회는 근대화에 대한 찬양(로고스에 대한 찬양)과 자연 등에 대한 찬양(에로스에 대한 찬양)을 통해 욕망의 모델과 주체의 시선을 재구성해 나갔다.

12) 베블린(Veblen)(1899)은 유한계급론에서 현대소비 사회의 과시 소비를 모방욕망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캠벨(Campbell)(1987)은 베블린의 분석이 근대사회의 사회적 경쟁에 의한 소비 추동을 인정하면서도, 근대사회의 소비주의 출현의 특성을 설명하지 못함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모방욕망은 근대사회의 특성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욕망이기 때문이다.

### Ⅲ. 신혼여행지로서의 온천 형성

#### 1. 근대 이전의 온천

##### 1) 신성한 탕치의 공간

오랜 기간 동안 온천은 신성한 공간이었다. 이는 온천에 대한 다양한 설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온천설화에 주로 나오는 학과 사슴은 장수를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이다. 김부식(2009)의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편 등에서도 사슴을 신비스러운 사슴이라는 의미의 신록(神鹿)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온천은 장수를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의 치료 공간 즉 신성한 탕치의 공간이다.

온천과 더불어 왕권 또한 신성한 대상이었다. 신라 왕관의 모습은 사슴뿔과 유사하며, 이는 왕권을 상징한다. 단군신화와 같이 고대 왕권의 탄생 설화는 대부분 신성화된 대상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온천은 왕들의 신성한 공간이었다. 이는 고려사절요 등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사절요<sup>14)</sup> 제24권 충숙왕 5년을 보면, '침의찬성사 김사원에게 명하여 온천에서 잡은 짐승으로 태묘(太廟)에 천사(薦祀)(제사)를 지내게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원래는 임금이 몸소 사냥하여 조상의 제사에 바치는 것이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온천은 신성한 권력인 임금이 직접 사냥하여 제사에 바쳐야 하는 신성한 공간이었던 것이다.

신성한 주체인 왕들은 신성한 공간인 온천을 탕치의 공간으로 이용하여왔다. 이에 대한 기록들은 삼국시대부터 존재하고 있다(김규한, 2007). 그리고 온천은 임금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치료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고려 목종(998-1009)은 1004년에 문하시중 한언공의 병이 나자, 온천에 가서 병 치료를 하도록 배려하였으며, 선종(1083-1094)은 "병든 부모께 온천치료를 시키고 자 하는 관리에게는 온천의 거리에 따라 휴가제를 실시하라."고 명하는 등 관리들의 치료를 위한 휴가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왕과 관리 혹은 귀족 양반들의 치료 공간으로서 온천 이용은 조선시대에도 지속된다.

조선시대의 왕이 주로 이용한 온천은 온양이었다.<sup>15)</sup>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보

13) 평해 온천은 신라시대 한 사냥꾼이 창에 맞은 사슴을 쫓다가 사슴의 은신처를 발견하였는데 그곳에서 온천수가湧출한 곳이었으며, 덕산온천은 1,500여년 전에 다친 학이 눈에서 물을 바르고 3일 후에 완치되어 날아간 곳이며, 척산 온천은 한 쌍의 학이 다리를 온천수에 담가 완치 된 후 북향으로 날아간 곳이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김규한, 2007).

14) 조선 전기 문종 2년 김종서 등이 편찬한 고려시대의 역사서(두산백과, 네이버)

15) 조선초기인 태조 이성계는 고려시대의 왕들이 주로 이용하였던 평주온천을 주로 이용하였다.

면, 온양온천에 행궁을 짓고 휴양이나 병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임금으로는 세종, 세조, 현종, 숙종, 영조, 사도세자 등이 있다. 세종<sup>16)</sup> 22년(1440년)에는 중궁이 충청도 온수현의 온천(온양온천)에 거둥, 한달 후에 돌아왔으며, 세종 23년(1441년)에 임금이 온천 행궁에서 치료 한 후 돌아갔다. 1443년에는 세종과 왕비가 왕세자와 대군, 신하를 대리고 온양군 온천에 거둥하였다. 1458년에는 세조가 온양에서 입욕 후 신정(神井)이라 명하고, 그 때 세운 기념비인 신정비가 아직도 남아 있다<sup>17)</sup>. 1760년에는 영조의 왕세자(사도세자)가 온천 행궁에 도착하고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

온양행궁은 온양행궁을 관리하는 감관이나 온천탕을 관리하는 탕직 30명을 들 정도로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조선왕실 소유의 재산이었다(온양문화원, 2009). 그러나 행궁이 설치된 온양온천은 왕족이나 지배계급만의 공간은 아니었다. 세종은 1419년 5월에 온천욕을 하다가 목욕하는 병자들을 보고, 쌀과 소금, 장을 나눠주기도 했으며, 남자와 부녀자들이 모두 목욕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고, 성종 역시, 온양 온천에서 왕실이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목욕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남쪽 온천에서는 재상 및 사족의 부녀에게 목욕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김일환, 2011). 온양 온궁은 왕실, 사대부, 일반 백성들의 공간으로 나뉘어 삼탕(三湯)으로 구성된 탕실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조선말기까지 유지되었다(김일환, 2011). 이러한 온양 온궁의 공간은 조선의 여민동락(與民同樂)과 유교적 민본정치의 실천의 정치적 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왕실과 사대부, 일반 백성이라는 조선시대의 계급구조의 차이를 반영한 공간이기도 하였다. 왕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하였던 북탕을 제외한 남탕은 일반인들이 이용하였다는 조선 후기, 남구만의 시문집인 약천집에 실린 온양온천북탕기의 기록을 보아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왕의 공간과 일반 백성의 공간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온양온천과 같은 특정 온천은 왕의 권력 아래에서 관리되고 통제되는 탕치의 공간이었으며 신성한 공간이었다.

온양행궁의 성스러운 왕의 공간과 세속적인 백성의 공간 분리는 백성의 성의 공간인 왕 혹은 양반의 공간에 대한 모방소비 욕망을 자극한다. 온양온천은 왕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던 곳이다. 그러나 온양온천이 실제로 만병통치의 공간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온천에 비해 유독 많은 사람들

그러나 평주까지 왕의 이동에 따른 부담이 커지자 세종 때부터는 주로 온양을 이용하였다.

16) 세종은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온천에 대한 애착이 많았던 왕으로 알려져 있다.

17) 현재 온양관광호텔 자리가 온양행궁의 자리이다.

이 온양온천을 방문하려고 하였다. 이는 계속선생집<sup>18)</sup>에 수록되어 있는 온양의 김 태수에게 보내는 시〔賦得溫泉 送溫陽金太守〕의 문구 중 “匍匐如歸市(모두 모여들어 저자처럼 붐비지요)”와 같은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온천에 비해 저자거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온양온천을 찾은 것은 온양온천이 성(聖)의 세계를 상징하는 왕의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상류계층에 대한 모방욕구는 근대 소비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다. 상류계층에 대한 모방욕구는 문명사회의 문화를 변화시켜온 주요한 동력 중의 하나이었다. 근대 사회 이전에 서구에서도 온천은 왕이나 귀족들의 공간이었으며, 근대화된 온천지 또한 상대적으로 숙박시설을 보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하였다(Urry and Larsen, 2011:33). 따라서 서구에서 17세기에 중간계층이 온천에 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들의 지위를 확인시키는 일종의 사회적 특권이었고 베블린이 제기한 대로 ‘과시적 소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설혜심, 2001:259). 과시적 소비는 기본적으로 모방욕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온천과 같은 특권계층의 공간은 모방욕망의 대상이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 2) 여가와 쾌락의 공간

온천은 왕이나 왕족들의 탕치공간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여가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는 온조 36년(18년)에는 아산지역에 탕정성을 쌓았고 동왕 43년 가을에 아산들판에서 5일간 사냥을 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강필성·박구원, 2010)과 충렬왕은 1287년 온천에 머물며 사냥을 즐기고 왕비인 원나라 공주와 함께 평주 온천에 머물기도 했으며, 다음해에는 임금이 평주 온천에서 사냥을 즐기기도 하였다는 고려사절요 21권의 기록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온천은 또한 쾌락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온천이 쾌락적 공간으로 활용된 기록은 삼국사기(김부식, 2009)의 기록에도 나온다. 삼국사기 서천왕(고구려 제13대 왕) 편을 보면, 서천왕 17년(286년) “봄 2월에 왕의 아우 일우(逸友)와 소발(素勃) 등 두 사람이 반역을 꾀하여, 거짓으로 병을 칭하고 온탕으로 가서 자기 무리들과 무절제하게 놀며 쾌역한 말을 하였다. 왕이 재상을 시켜준다고 거짓으로 이들을 부른 후 그들이 오자 힘센 장사를 시켜 잡아 죽였다.”라 기록되어 있다. 이는 왕의 동생과 귀족들이 온탕 즉 온천에 가서 집단적으로 쾌락적 오락을 즐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온천이 귀족들의 쾌락적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태당선생 속집 제5권에 나오는 시에서도 보면 유람이 ‘大勝華

18) 조선 후기 경기도 안산 지역에 은거했던 장유(張維)(1587~1638)의 문집

淸浴(화청지(華淸池)<sup>19</sup>)의 목욕보다 훨씬 더 낫지 않소)’ 라는 문구가 나온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홍대용(洪大容)(1731 ~ 1783)의 시문집인 담헌서(내집 1권)을 보면, ‘기수에 목욕하는 일은 물론 즐거운 일이요 또 군자가 때로 있는 바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 즉 목욕하는 일은 즐거운 쾌락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온천에서의 목욕 또한 유람과 비유될 정도로 매우 쾌락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왕들의 목욕은 매우 사치스러웠다. 고려사절요에 충숙왕은 특히 깨끗함을 좋아하였는데, 목욕에 쓰이는 여러 가지 향료(香料)가 한달에 10여 항아리나 들었으며, 수건(手巾)으로 사용하는 저포(苧布-모시)가 60여필이 들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와 같이 왕들의 목욕에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많은 물자가 사용되었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모방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2. 일제에 의한 온천개발과 욕망의 재구성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시대는 전근대사회와 다른 욕망의 모델을 재구성해 나가는 시기이다. 이러한 욕망의 재구성은 신성한 탕치의 공간이었던 전근대사회의 온천을 새로운 근대 여가공간과 낭만적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 1) 근대에 대한 욕망과 신혼여행

19세기 한말 조선에서 근대화는 욕망의 대상이었다. 이 당시 신문화 도입의 주도세력은 유길준과 같이 해외유학의 기회를 가졌었거나 일찍이 서구사상에 동조한 개화파 기독교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중산층이었다(박혜인, 1983). 최초의 일본과 미국 유학생이었던 유길준(1889)은 서유견문을 통해 증기기관, 기차, 기선, 전신기, 전화기, 각국 대도시의 모습 등은 물론 결혼과 장사의 절차와 예절, 친구 사귀는 법, 여자를 대접하는 법, 다양한 다회, 무도회, 음악회, 야유회, 일기회, 유치회, 연극, 야회(서커스), 서양식 결혼절차까지 서양의 다양한 여가활동이나 일상적인 생활 모습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유길준의 서구 근대사회에 대한 소개는 유길준이 19세기 부르주아 중심의 서구사회의 일상적인 삶 자체를 포함한 근대화된 세계에 대해 욕망하고 있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길준의 견문록 기술방식과 태도를 통해 19세기말에 지식인들이 얼마나 근대화와 서구문화를 욕망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당대의 시대적 상황은 조선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신문화도입에 몰두하게 만들었다(박혜인, 1983).

19) 당나라의 화청궁의 온천인데, 양귀비가 목욕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1910년대 식민초기에는 서구에 대한 선망과 동경 속에 서구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급급하였으며, 식민화된 근대 대중 소비문화를 경험한 근대적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계층인 모던세대가 성립된 1920년대 이후 식민지 근대는 도시를 중심으로 일상문화의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주창윤, 2008). 국가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근대에 대한 욕망을 강조하였던 식민초기의 신세대와 달리 모던세대는 식민화된 근대소비문화의 새로운 소비계층이라는 즉 근대 소비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윤선자, 2004). 이러한 모던세대의 등장은 근대에 대한 욕망과 더불어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 지배를 강화시키기 위한 문화정치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모던세대에게 서양식 결혼식을 포함한 서구식 여가는 획기적이며 추종해야 할 대상으로 모방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서양 결혼식의 일부로 여겨졌던 신혼여행 또한 모방욕망의 대상 중의 하나이었음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딸 부부가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다는 국민보의 기사(1913.12.6)<sup>20</sup>와 베트남 지역의 한 왕국이었던 선라황제가 싱가포르(싱가포르)로 신혼여행을 간다는 시대일보(1924.9.30)의 신문기사<sup>21</sup>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sup>22</sup>. 신혼여행에 대한 신문기사는 일반 서민의 신혼여행이 아닌 황제나 대통령과 같은 외적매개자를 통해 본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신혼여행을 보도하는 욕망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호화스러운 신혼여행을 갈 수 있는 계층은 매우 소수이었다(안혜숙, 2010).

## 2) 식민 지배 권력 공간으로의 재구성

일제는 조선에 진출하면서 일본인들을 위한 온천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온양 온천과 동래온천이 대표적인 온천이었다(부산근대역사관, 2010:130).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1905년(광무 9) 11월에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1906년 2월 통감부를 설치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 지배를 가속화시킨다. 1904년 9월 이전부터 온양온천에 와 있던 일본인들은 계획적으로 온양행궁 인근에 있는 민간주

20) "11월 25일에 워싱턴 백궁(백악관)에서 혼례를 거행한 윌슨 대통령의 둘째 딸 셀쓰부인은 부부가 쌍을 지어 신혼여행을 떠나 구라파(유럽)로 향하는데 메사추세츠 윌리엄에 있는 사저는 집이 협소하여 결혼 때 각 친구에게서 받은 물품을 보관할 수 없어서 대충의 물건은 창고 회사에 보관하고 12월 1일에 출발하였는데 윌슨 대통령과 해군경 다니엘과 대통령관방서기와 그 외 여러 친구들은 뉴욕까지 전송하였다 함."(국민보 : 1913년 12월 06일 )

21) "선라(暹羅) 황제와 황후께서는 궁내대신 내무대신 시종 등 팔십여명을 거느리고 선라특별열차로 25일 아침 9시30분에 싱가포르에 도착 하셨는데 싱가포르에서는 29일까지 묵으실 예정인데 이는 마래반도(馬來半島)로 신혼여행을 하신것이라 한다."(시대일보, 1924년 9월 30일)

22) 신문기사는 읽기 편하도록 부분 수정하였다.

택을 철거하고 불법적으로 온천행궁 소유권을 강탈하였다(온양문화원, 2009). 1905년에 일본인들은 온양온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온양행궁 내에 있는 건물 중 해파정, 신정비각, 영괴대 비각 등 3개 건물만을 남겨놓고 모두 철거한 후, 왜식의 목욕탕을 신축해 온양관이라는 온천장을 경영하였다<sup>23)</sup>(강필성 외, 2010:91).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온양온천은 주말이면 통감부 직원 및 일본 고관들의 휴양공간으로 변화될 정도로 일제 권력집단의 휴양공간으로 변화되었다(강필성 외, 2010)<sup>24)</sup>. 온양온천은 통감부 고위관료만의 공간이 아니라 친일권력자들의 공간으로도 이용되었다. 한일합방의 주도자이며 권력자이었던 이완용<sup>25)</sup>은 치료를 이유로 온양온천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친일정치를 지속하기도 하였다<sup>26)</sup>. 그리고 많은 친일 세력들이 이완용을 방문하러 온양온천을 방문한다. 관립한성고등학교교수 여규형, 전 군수 안승옥, 규장각경 조동희(친일파), 중우원찬 조영희(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냄), 한창수(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냄), 윤덕영(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작위 받음) 등이 이완용을 방문하러 온양온천으로 내려간다는 보도(매일신보, 1910.6.10)가 줄을 잇고 있다. 이는 온양온천이 친일권력집단의 정치 공간으로 이용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온양온천은 일제 지배계급만의 공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천도교주 손병희가 일행과 함께 기차를 타고 온양온천으로 내려갈 때, “남대문정거장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온양온천으로 향해야 온정(온천) 목욕하러 떠나가는데 위의(위세)가 심해 광대하였다”라는 매일신보(1915.4.14)의 보도에서 보듯이 유력 인사들의 온양온천 이용은 사회적 관심사항이었다. 20세기 초까지 온양온천은 친일 지배 권력집단을 포함한 상류계층의 특별한 공간으로서 이용되고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23) 일제는 1905년 1월 29일 『일한동지조합』을 칙명(勅命)이라는 명목으로 23개 산업에 대한 수탈계약을 맺게 되는데, 온천개발이 이때 계약대상이 되었다(온양문화원, 2009). 이러한 수탈계약은 온양온천 등에 대한 일제의 식민개발을 본격화시키게 된다.

24) 초대 통감 이토히요(伊藤)는 1907년 1월 한국 주차군 참모장(헌병대장 출신) 『이시아끼 겐지로』(明石之二郎)를 비롯한 고위관료와 수행원을 데리고 5일간이나 온양온천에 머물다 갔으며, 그 이후로 온양은 통감부 고위 간부들이 빠짐없이 온양을 방문하는 등 일본사람들의 전국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온양문화원, 2009).

25) 李完用은 1909년 12월 명동 천주교 성당에서 이재명(李在明)의사의 칼에 찔려 복부와 어깨에 중상을 입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온양온천에 내려와 그해 겨울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거의 반년이나 요양차 체류했다(온양문화원, 2009).

26) 1910년 6월에 이완용은 온양에서 우리의 경찰권을 일제에 넘긴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는 등 친일정치를 지속하였다(온양문화원, 2009).

### 3) 근대 욕망 공간으로서의 온천의 형성

일제는 식민 지배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조선의 공간을 없애고 그 자리를 근대적 식민 공간으로 재편성하였다. 1920년대 이후, 화려하고 웅장한 백화점, 은행, 병원, 관공서, 공원 등이 경성의 새로운 볼거리로 등장한다. 일제는 재편된 도시 공간에 대한 관광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고 1929년 조선박람회는 젊은 세대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150만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서구문물과 소비주의를 받아들이는 스펙터클의 장으로 기능했다(주창윤, 2008:189). 이러한 근대화된 경성이나 조선박람회 등에 대한 관광 추진은 일제에 의한 근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려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부산근대역사관, 2010:68). 동시에 식민지 근대화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추구자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관광을 통한 식민지배의 정당화는 철도 발전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었다. 일제는 식민지 경영을 위해 철도를 개설한다. 많은 철도들이 일제자본에 의한 민간철도의 형태로 개발된다. 민간철도는 철도운영을 위하여 바다, 산, 온천을 새로운 휴양지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관광을 조직하였다. 경원선이 개통되면서 금강산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가 철원에서 장안사까지 설치되었고, 중앙철도는 경주를, 서선식산철도는 황해도 장수산과 신천온천, 경남철도회사는 온양온천을 관광지로 조성한 것이 대표적이다(성주현, 2011:210). 철도회사나 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를 하기도 하였으며<sup>27)</sup>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탐승단’ 또는 ‘관광단’, ‘시찰단’ 등을 조직하여 관광지를 탐방(성주현, 2011:210)하였고, 관광은 1920년대부터 점차 대중화되었다(박천홍, 2003).

1922년에 일본인이 만든 경남철도주식회사는 온천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천안과 온양구간에 이르는 경남선(현재 장항선)을 개통하였다. 경남철도주식회사는 온양온천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온양관을 매수하여 온천 개발 및 숙박시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름도 신정관(神井館)으로 개칭하였다(강필성 외, 2010). 신정관을 세우기 위해 온양행궁 중 일부시설만을 남기고 모두 헐어버렸다(박천홍, 2003:362). 신정관을 총면적 6,100 여 평에 객실 70여실과 서양식의 많을 시설을 갖추었다. 호텔과 온천관은 베란다(Veranda)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온천관은 남탕과 여탕으로, 내부에는 식당(한식, 양식, 일식), 매점, 이발소, 휴게실, 오락실(당구장, 바둑, 장기, 마작), 독탕 등의 시설을 했고, 외곽에는

27) 홍보성 관광안내서는 식민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이 안내서는 식민지 지식층에서도 적지 않게 활용되었다(성주현, 2011:211).

光風閣, 彩霞寮, 香雲莊, 惠波亭(한식)의 별장을 지었다. 이들 각동은 일식과 서양식을 가미해서 건축했으며 신정관에는 대형 식당을 마련하여 식사를 즐길 뿐만 아니라 연예실로도 사용할 수가 있었다(온양문화원, 2009). 이러한 호텔을 포함한 근대 여가공간은 식민지 조선인에게 모방 욕망의 대상으로 매력적인 공간이었다. 이는 이광수의 소설 재생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순영이가 동래관에서 귀족부인의 역할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근대 귀족부인의 삶에 대한 모방 욕망이 순영의 욕망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튿날 식전에 부산역에 내려서는 곧 정거장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자동차를 잡아타고 동래 온천으로 올라갔다. — 동래관의 크기는 크지만 욕실과 음식이 명호만 못해 하며 자동차는 명호여관 앞에 놓였다. 뉘 집 부인이 아니면 어느 댁 아가씨와 같이 아름다운 하인들이 나와 허리를 굽히고 땅에 엎드려 두 사람을 맞았다. 모두 순영에게는 처음 보는 광경이요, 처음 하는 호강이었다. 사람이란 이렇게 살게야! 하고 순영은 한번 더 웃었다”(이광수의 재생, 70-71, 김주리, 2007:135 재인용)

일제는 신정관뿐만 아니라 온양 시내를 근대 욕망의 공간으로서 낙원의 공간으로 바꾸어 나간다. 1927년 3월 2일자 매일신보(28)에 “손님을 유인하기 위하여 (중간생략) 욕장 유원지(遊園地) 등의 설비를 완성케 하고 그것을 한층 더 미려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가용전기의 발전설비를 계획 중이던 바 (중간생략) 20Kw의 발전력을 가진 자본금 오만원의 전기회사를 신설하기로 하고 (중간생략) 이로 인하여 경성을 위시하여 삼남 일대의 주민이 유일한 온천지와 유원지로 (중간생략) 온양온천에는 머지않아 전 시가를 아름다운 전기로 장치하게 되었다더라. “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대도시였던 서울 다음으로 온양 시가지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의 제목이 “三南의 낙원된 온양”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가로등이 켜진 근대화된 시가지는 일종의 낙원으로 찬양되고 있다. 실제로 1936년 9월에 32축의 전등 60개를 온양 온천 시내에 설치하였다. 이에 대한 기사를 보면, “遊樂鄉(유락향) 즉 “놀이의 낙원의 보양지(保養地)”로 온양온천의 명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하고 있다(매일신보, 1939.9.19).

일제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등을 통해 이러한 식민 근대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문화적 시도를 조직한다. 이러한 문화적 시도에는 온천 또한 포함되어 있다. 춘원 이광수에 의해 매일신보에 연재된 여행기행문인 “오도답파여행(五

28)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와 일제의 통치에 협조적이고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주장하는 논조로 발간되는 일제의 기관지였다(www.mediagaon.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道踏破旅行)29)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기행문의 의도는 조선인이 조선의 각 지역을 시찰하고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 일제가 식민지배 7년 동안 조선 문명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알리고자 하였던 것이다(정혜영, 2009). 이광수는 오도답과여행 제 28신에 해운대 온천에서 목욕한 뒤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천지개벽(天地開闢) 적에 집혀놓은 지심(地心)의 금석(金石)불에 끓인 물이 온천이다. 맑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물에 신체를 잠그고 앉았는 맛은 참 비길 데가 없다. 얼른 얼른하는 화강석(花岡石) 위에 앉아 말끔하니 전신(全身)을 씻고 나서 백설(白雪)같은 양모(羊毛)같은 수건(手巾)으로 몸을 씻고 백사(白沙) 청송(靑松)으로 솔솔 불어오는 청풍(靑風)을 썰면, 육신의 진구(塵垢)만 아니라 정신의 진구(塵垢)까지 씻어지는 것 같다. 만장홍진(萬丈紅塵)중에 간후(汗臭)를 맡으며 다리(多利)와만 추축(追逐)하던 인생이 일야(一夜) 청간(靑間)의 선경(仙境)의 맛을 봄은 실(實)로 만금(萬金) 싸다 하겠다. 이 물로 몸을 씻으면 몸이 깨끗하여지고, 이 물을 마시면 만병(萬病)이 소멸(消滅)한다”(이광수 전집, 1963:161)

이광수는 조선인에게 새로운 문화였던 일본식 온천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 그는 해운대의 온천을 이익만 추구하는 더럽혀진 일상의 세상과 다른,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는, 선경의 맛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소개한다. 이광수의 소개로 유명하지 않았던 해운대 온천은 일거에 명소가 되었다(국사편찬 위원회, 2008:156). 이러한 문화적 시도는 해운대 온천뿐만 아니라 식민 근대화된 공간에 대한 욕망을 문화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제에 의한 근대휴양지로서의 온천에 대한 미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철도 개발과 더불어 온천개발이 본격화되던 1928년에 매일신보는 조선의 유일한 겨울 놀이터인 온천을 겨울의 낙원이라 소개하며, 각 지역의 온천장을 소개하는 등 온천에 대한 찬양 기사를 매우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조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낭만적이며 신성한 쾌락의 낙원이라는 온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강화되었다.

그러나 쾌락적 공간으로서의 낙원이라는 온천에 대한 이미지는 식민지배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박영효가 쓴 일본 방문기인 ‘사화기략(使和記略)30)에 아타미(熱海) 온천을 방문했을 때(1882년 10월 27일)의 기록이 있는데, 박영효는

29) 매일신보사는 춘원 이광수에게 의뢰하여 남한의 5도지역(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에 대한 답사 여행을 매일신보에 53회 기행문으로 연재하였고 이광수는 여행답사기를 통해 일제가 만들어놓은 근대문명을 찬양한다.

30) 사화기략은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아타미 온천을 락토(樂土)라고 표현하였다(다케쿠니 토모야스(竹國友康), 2006). 그 당시 박영효 일행은 머물렀던 기간 동안 아타미(熱海) 온천에서 매일 목욕을 하였다고 한다. 아타미 온천은 에도시대부터 탕치장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근대에는 오자키 코요의 “금색야차(金色夜叉-곤지키야샤)”로 인하여 더욱 유명해졌다(박현옥, 2010). 소설의 젊은 남녀 주인공들이 이별하는 장소로 사용된 곳이 바로 아타미 온천이었기 때문이었다. 아타미 온천은 작품을 통하여 일본 독자에게 젊은 사랑의 장소 즉 로망스의 장소로 인식 되었다(박현옥, 2010). 근대화에 대한 지식이나 문화가 일본을 통해 상당부분 유입되었기 때문에 ‘장한몽’이라는 이름으로 1913년 5월 13일 부터 10월 1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어 큰 인기를 얻었던 금색야차 또한 국내에서도 일본어가 가능한 젊은 지식인들에게 또한 소개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소설들을 통해 온천은 당시 욕망의 대상이었던 부르주아의 화려한 소비문화를 충족시키는 설비들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으로 로맨스를 꿈꾸는 에로스적인 근대 공간으로 인식되어갔다. 그리하여 1930년대 온천 휴양지는 근대에 대한 욕망을 가진 학생들과 지식인 문인들, 자본가 계층이 방문하는 곳이 되었다(김주리, 2007). 1920년대에 온천은 식민지 사회의 일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1930년대 후반에는 저명인사 15명 중에서 신년 정초 여행지로 온천을 답사한 사람이 4명이 될 정도로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 관광명소가 되었다(김승, 2011:204). 실제로 온천은 지식인들 사이에 외국의 온천과 같이 로맨틱하고 쾌락의 공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는 일제시대 희곡작가 남우훈이 1924년 여름에 온천을 방문하였을 때의 경험에 대한 술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처음 온천장을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온천장이라는 곳을 불가사의한 로맨틱한 장소이거나-외국에서는 문헌이나 사실에 있어서 온천장을 무대로 많은 로맨스가 있을 뿐 아니라 조선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많음으로 ..(국사편찬 위원회, 2008:156).

지식인뿐만 아니라 신세대에게도 온천이 낭만적 사랑의 공간으로 혹은 쾌락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온천은 로맨스가 있는 사랑의 공간으로 욕망의 대상이었다는 점은 대학학교 상무위원인 사람이 일종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인 동정금(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아 온천에서 유희비로 사용하였으며(매일신보, 1927년 8월2일), 온양온천 신청관으로 남녀가 사랑의 도피를 하여 경찰이 체포하였다는 기사(매일신보, 1936년 6월2일), 그리고 두 상의 소년, 소녀가 온천으로 사랑의 도피를 하러가다가 중간에 붙잡혔다는 기사(조선중앙일보, 1936년 7월 21일)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온천은 찬양되고 추

종되어야 할 근대문화의 공간이며, 서구 소비문명의 하나인 낭만적 로망스가 있는 근대 여가공간으로 추종해야 할 욕망의 대상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리고 낭만적 시선은 새로운 욕망의 대상에 주체만의 시선을 강조한다(Urry & Larsen, 2011). 이러한 낭만적 시선은 낭만적이고 로망스가 있는 온천에서의 주체만의 시선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세상의 주인인 왕과 왕비와 같은 주체로서의 시선을 수용하게 만든다. 이러한 낭만적 시선의 수용은 모방욕망의 공간으로서의 근대화된 온천을 왕이나 왕비와 같은 신성한 외적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결혼식장이나 신혼여행지로서 선호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실제로 일제 식민지하에 지식인들이 온 천에서 결혼식을 올렸음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본사 기자 김복진군은 현재 부내배화 여자고등 보통학교와 부내 래평동 일본 와이엠씨에이 여자 고등학원량교의 교원으로 있는 허하백 양을 마저 오는 9월3일 오전 열한시에 백천온천 천일각에서 본사 사장 러운형씨의 주례하에 화혼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다.”(조선중앙일보, 1935년 8월 30일)

#### IV. 종합논의

신혼여행은 통과의례인 혼례의 과정인 동시에 근대 산물인 관광의 한 종류이다. 신혼여행은 세속의 세계에서 신성한 세계로의 분리와 통합의 과정이며 신성한 세계의 역할을 수행하는 통과 의례이다. 신혼여행에서 신랑과 신부가 왕이나 왕비와 같은 역할 수행은 바로 통과 의례로서의 역할 수행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혼여행은 추종해야 할 신성한 세계의 모델에 대한 모방욕망에 의해 추동되는 관광이다. 관광지가 신혼여행지로 선호되기 위해서는 추종해야 할 신성한 세계의 모델에 대한 이미지나 신념 등이 조직되어야 한다. 인간의 욕망은 모델을 매개로 한 모방욕망이다. 인간주체와의 거리가 먼 이상적 모델인 외적매개자는 찬양의 대상으로 조직된다. 전근대 사회에서 온양온천은 신성한 탕치의 공간으로서 모방욕망의 대상이었으나 식민지 근대사회로의 변화는 온양온천에 대한 모방욕망의 모델과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일제는 온양온천을 조선왕조의 신성한 탕치의 공간을 흔적만 남긴 채, 식민지배의 권력집단의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그리고 온양온천은 근대화를 상징하는 신성관의 호텔이나 각종 여가시설로 재구성된다. 근대화된 공간으로의 온양온천의 재구성은 조선 왕조의 탕치의 공간을 일본 식민 지배의 공간으로 바꾸는 동시에 근대적 모방 욕망의 대상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식민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온천을 포함한 근대화된 여가공간에 대한 문화적 찬

양을 통해 조직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직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춘원 이광수의 오도답과여행기, 신문보도의 조직화, 철도개발회사의 홍보 등이 있다. 이러한 문화적 조직화는 근대화된 공간인 온천을 낭만적 공간으로 변화시켰으며,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신세대에게 온천은 근대의 여가공간으로서 낙원으로, 로망스가 있는 공간으로 수용되었다. 이와 같은 수용은 20세기 초, 한반도의 지식인과 신세대에게 신문화는 모방해야 할 욕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온양온천은 일제 식민지배 권력집단의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매개자로서의 욕망의 대상인 권력집단의 공간, 근대 합리성의 공간인 동시에 낭만적 로망스가 있는 근대 여가공간으로 재구성되었고 지식인들과 신세대에게 수용되었다. 따라서 온양온천은 식민지 근대초기에 신희여행지로서 갖추어야 할, 욕망의 대상이었던 신성한 성스러운 외적매개자의 이미지를 가진 공간으로 재구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성스러운 외적매개자로서의 이미지와 더불어 낭만적 공간으로서의 온천에 대한 시선의 재구성은 낭만적 공간인 온천에서 세상의 주인인 왕과 왕비와 같은 주체로서의 시선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신성한 외적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수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20세기 초, 식민 지배시기, 신희여행지로서 온양온천의 선호는 근대화에 대한 모방 욕망으로의 공간의 재구성과 온천에 대한 낭만적 시선의 문화적 재구성과 근대문화를 욕망하였던 모던세대에 의해 수용된 결과라고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희여행지로서의 선호와 변화는 모방욕망에 대한 모델 변화와 공간에 대한 낭만적 시선의 문화적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누가 욕망하고 수용하게 되는지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70년대 이후 온양온천이 신희여행지로서의 명성을 잃게 되었는지, 신희여행지로 제주도의 선호나 90년대 이후 해외여행지의 선호의 변화 등에 대한 이해는 사회변화가 어떻게 외적매개자로서의 모방 욕망 모델을 변화시켰고 어떠한 시선을 창출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신희여행지에 대한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 참고문헌

- 강정원(2009). 모방과 차별. 『지방사와 지방문화』, 12(1), 45-80.  
 강필성·박구원(2010). 온양온천의 역사적 변용에 대한 고찰. 『동북아 관광연구』, 6(2), 83-103.  
 국사편찬위원회(2008). 『여행과 관광으로 본 근대』. 두산동아.

- 권귀숙(1998). 『신혼여행의 사회학』. 문학과지성사
- 김규한(2007). 한국의 온천. 이화여자대학교.
- 김모세(2008). 『르네 지라르: 욕망, 폭력, 구원의 인류학』. 살림.
- 김부식(2009). 『삼국사기』. 지식올만드는지식.
- 김사현(2008). 어리의 관광시선론 재론: 시선주의의 비판과 확장. 『관광학연구』, 32(6), 85-103.
- 김시중(2011). 온천관광지의 다차원 포지셔닝 연구. 『관광학연구』, 35(9), 383-400.
- 김정근·홍형욱(1996). 혼례변화에 따른 혼수기물과 혼례가구의 변천: 고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대한가정학회지』, 34(1), 189-202.
- 김일환(2011). 조선시대 온양행궁의 건립과 변천 과정.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9, 105-138.
- 김주리(2007). 식민지 시대 소설 속 온천 휴양지의 공간 표상. 『한국문학』, 40 127-155.
- 김승(2011). 일제 강점기 해항도시 부산의 온천개발과 지역사회의 동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14(1), 203-226.
- 김현진(2006). 시선을 중심으로 본 주체와 욕망의 메커니즘. 『뷔히너와 현대문학』, 27, 363-384.
- 다케쿠니 토모야스(竹國友康)(2006). 『한국 온천 이야기- 한일 목욕문화의 교류를 찾아서』. 논형. 소재두 역.
- 박천홍(2003).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 철도로 돌아온 근대의 풍경』. 산처럼.
- 박현욱(2010). 근대 일본에 있어서 심상공간으로서의 온천문화연구: 온천안내와 온천순례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47, 281-300.
- 박혜인(1983). 여가에서의 혼례식의 연원 및 그 변천. 『여성문제연구』, 12. 125-141.
- 부산근대역사관(2010). 『근대, 관광을 시작하다』. 민속원.
- 설혜심(2001). 『온천의 문화사: 건전한 스포츠로부터 퇴폐적인 향락에 이르기까지』. 한길사.
- 성주현(2011). 철도의 부설과 근대관광의 형성. 시선의 탄생-식민지 조선의 근대관광. 조성운외. 『선인』, 205-250.
- 정봉국·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2012). 『역주삼국사기2』. 한국학중앙연구원.
- 정혜영(2009). 오도답과여행과 1910년대 조선의 풍경. 『현대소설연구』, 40, 313-335.
- 안혜숙(2010). 한국사회의 산업화 이후 혼례 관행 변화에 관한 연구: 1960년대-200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3), 88-108.
- 온양문화원(2009). 『온양온천비사』. 온양문화원.
- 유광민·김남조(2011). 국내리조트 입지확산과 공간상문화. 『관광학연구』, 35(8), 283-302.
- 유길준(1889). 『서유견문』. 한양출판(1995).
- 윤선자(2004). 1920-1930년대 여성잡지를 통해 본 여성들의 여가문화. 『역사민속학』,

18, 311-334.

- 이광수(1963). 『이광수전집 18권』. 삼중당.
- 이영배(2011). 혼인습속의 고유성과 무(무)의식의 사회문화적 의미. 『국어문학』, 50, 137-159.
- 이용기 · 이덕우 · 이충기(2008). 지각된 환경단서가 방문객 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수안보 온천축제의 경우. 『관광학연구』, 27(1), 85-104.
- 이재섭 · 김홍일 · 한범수(2010). 온천관광지 유형별 매력차이 연구: 보양온천과 일반온천 간 IPA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4(2), 259-279.
- 주창윤(2008). 1920-1930년대 모던 세대의 형성과정. 『한국언론학보』, 52(5), 186-206.
- 하일식 (편)(2007).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 서울:혜안.
- 홍나영 · 이은진 · 박선희(2002). 20세기 한국의 혼례문화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과 경상도의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1), 1-16.
- 닝왕(Ning Wang)(2000). Tourism & Modernity: A Sociological Anaylisis. 『관광과 근대성-사회학적 분석』. 이진형 · 최석희 역(2004). 일신사.
- Lacan, Jacque(2011). 『자크 라캉 욕망이론』. 권택영 역음(2011). 민승기 · 이미선 · 권택영(역). 문예출판사.
- 반겐넵, A(1908). 『통과의례』. 김경수 역(1985). 서울:을서문화사.
- Campbell(1987). The Romantic Ethic and the Spirit of Modern Consumerism. 박형신 · 정현주 옮김(2010). 낭만주의 윤리와 근대 소비주의 정신. 파주: 나남.
- Urry, J., & Larsen, J.(2011). *The tourist gaze 3.0*. Sage.
- Veblen, Thorstein.(1899).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유한계급론-문화, 소비, 진화의 경제학. 원용찬 역(2007). 살림.
- <http://db.itkc.or.kr/itkcdb/>(한국고전종합DB)(고려사절요, 계곡선생집, 담헌서, 약천집, 조선왕조실록, 태당집, 해동역사)
- [www.mediagaon.or.kr](http://www.mediagaon.or.kr), 한국언론진흥재단(국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조선중앙일보)

2012년 10월 4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2년 11월 19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2년 11월 20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특